진실이 오른다 -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52호 1판 (음력 5월 6일) 2014년 6월 3일 화요일

‘초박빙’ 광주시장 선거 4대변수에 승패 달렸다

선택 6·4 지방선거 D-1

윤장현·강운태 막판 총력전

①투표율 따라 유불리 갈려
②부동층 공략이 관건
③이용섭 票 어디로 갈까
④이병완 득표력에도 관심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초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광주시장 선거는 부동층의 표심과 투표율 등 4가지 막판 주요 변수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윤장현 후보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강운태 후보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막판 변수가 판세를 좌우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투표율**＝역대 광주시장 투표율은 1995년 64.8%, 1998년 45.1%, 2002년 42.3%, 2006년 46.3%, 2010년 49.8%로, 첫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50%를 넘지 못했다. 또한, 모두 전국 평균 투표율을 밑돌았다.

이는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광주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다 보니 경선이 끝난 뒤 본선 열기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윤장현 후보와 강운태 후보의 경쟁이 치열해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 측은 “5% 이내의 승부일 때는 투표율이 승부를 좌우할 수 있다”며 “강 후보는 조직력이 탄탄한만큼 투표율이 높을수록 윤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후보 측은 “두 후보 모두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투표율은 올라갈 것이지만, 투표율 못지않게 적극적인 지지층이 주변 부동표를 어떻게 설득해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부동층 향배**＝20%대인 부동층의 향배도 관심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결과 광주시장 선거의 부동층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강운태-이용섭 무소속 후보 단일화 이후 부동층은 30%가까이로 증가했지만, 언론사들의 마지막 여론조사결과 다시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유권자 10명 중 2～3명 정도가 아직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셈이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그동안 여론조사 지지도에 반영되지 않은 부동층이 투표장으로 나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두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부동층 공략을 위해 저인망식 유세를 진행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용섭 지지층 표심 주목**＝강 후보와 단일화한 이용섭 상임선대위원장 지지층의 향배도 관심이다.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뤘지만, 각종 여론조사결과 이 선대위원장의 지지층이 강 후보 측으로 그대로 옮겨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강 후보는 물론 윤 후보도 막판까지 이 선대위원장의 지지층을 끌어 안기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득표율 5% 이내의 승부라고 가정할 때 이 상임선대위원장 지지층의 선거일 표심이 두 후보의 운명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선대위원장은 전략공천의 부당성과 강운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를 이틀 앞둔 2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배수진’을 치며 강 후보를 지원 사격하고 나섰다.

◇**이병완 후보 득표율 변수**＝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무소속 이병완 후보의 득표율도 윤장현-강운태 두 후보의 당락을 결정지을 변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윤 후보와 강 후보 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2강’후보에 비해 지지율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4년 단임·광주 연립정부 구성’ 등 분명한 색깔을 내며 개혁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어 지지층이 겹치는 것으로 분석되는 윤 후보 측이 긴장하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4 지방선거
이런 후보가 좋아요 ▶2·3면
광주시교육감 공약 점검 ▶4면
격전지를 가다－구례·곡성 ▶5면

“내일은 내가 시장·지사 임명하는 날” 6.4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2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호남대 김량희(여·1년)·김현성(3년)씨가 ‘투표’라고 쓰인 푯말을 들고 광주시민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국조특위 출발부터 ‘기우뚱’

야당 위원만 팽목항 방문
여당 일정 취소 진실공방

여야는 2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을 방문키로 했으나 야당 위원들만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실종자 가족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일방적 일정 취소”라며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애초 특위는 이날 사고 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 위원들이 이날 아침 출발지인 용산역에서 야당 측에 불참 의사를 밝혀 결국 야당 위원들만 현지로 갔다.

특위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현지에서 가족들이 저희가 오는 것을 원치 않아 가지 않았다”며 “오늘 새벽 0시 반쯤 현지에서 결정돼 연락이 왔는데 밤중이라 너무 늦어 위원들에게 연락을 못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다고 반박했다. 야당 위원들은 “어제 아침 위원장이 범정부대책본부 측에 연락해 ‘5일로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현미 간사에게도 ‘진도 현장 가족들 요청에 따라 5일로 연기합니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간사가 유족 대표 측에 확인한 뒤 위원장에게 ‘유족 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 예정대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다”면서 “그런데 자정께 위원장이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사고 현장을 찾았다가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특위 소속 새정치연합·정의당 의원 9명은 이날 오후 남은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는 진도 실내체육관 마당의 천막 안에서 비공개 면담을 했다. 아직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는 16명(15가구)으로 이날 현장에는 10여명의 가족들만 남아있었다.

한 실종자 어머니는 “국조나 특검도 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의원들이 내려올 때 과연 무얼 갖고 왔는가이다”라며 “날짜 하나 못 맞추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항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탑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6명 사망 288명
※ 세월호 참사 50일째
2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6면

나주 오는 한전·6개 발전자회사 하루 부담 이자만 65억원

금융부채 공기업 중 최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공사의 금융부채 이자가 전국 공기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2일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추이’에 따르면 LH와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자회사 등 18개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지난해 이자 지급액은 9조74억원이다.

18개 공기업의 지난해 이자지급액은 2009년 6조2635억원의 약 1.4배에 이를 정도로 급상승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수력원자력·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 2조3443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하루 이자는 65억원에 이른다. 도로공사의 지난해 이자지급액도 966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부채 공룡 LH의 연간 이자 지급액은 7971억원에 달한다.

18개 중점관리 기관 중 LH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42조3312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전이 104조766억원으로 2위를 달렸다.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도 LH가 97조9767억원으로 1위, 한전이 61조773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 상담교육원
여성가족부 인정 2014년도 야간방학반
“가정폭력 상담원” 모집
2014년 6월 16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문의 062)605-1112,1063